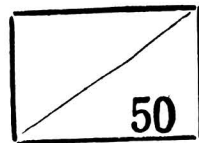


國統 74 - - 11P



北韓經濟의 推移와 工業 및 農業 研究



1974. 11.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責任者： 任 文 淳

目 次

一. 北韓共產主義의 特徵	3
二. 北韓經濟의 推移	17
三. 予算・社会総生産	31
四. 北韓의 工業	45
五. 北韓의 農業	59

一 . 北 韓 共 産 主 義 의 特 徴

序

소련을 위시한 非西方 地域을 가리켜 공산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지역 개념은 二次大戰 후에 발생했다. 그것은 이 地域 속의 여러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그들의 정치·경제·사회체제 구성의 원리를 「마르크스·레닌」主義에서 얻어 왔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산권 내의 여러 나라들은 共產政權에 의해서 統治되고, 그 통치의 기관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各國의 공산당이다. 그리고 각국 공산당은 不定期的으로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세계 공산당대회에서 그들의 국제적 통일성을 다짐하고 공산당간의 内部葛藤을 조정함으로써 「마르크스·레닌」主義의 보편적 妥當性을 유지하고 있다는 外樣을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世界 共產黨大會에는 이른바 공산권 내의 공산당뿐만 아니라 비공산권 내의 共產黨(合法·非合法 共產黨을 막론하고)까지 참가하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世界 共產黨大會가 現代 共產主義의 實態를 集中的으로 표현하는 會議體일 것이다. 따라서 세계 공산당대회의 귀추는 현재 공산주의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현대 공산주의라고 할 때 그것의 「이데올로기」적 綱領과 實態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共產主義의 이념과 「社會主義的 現實」을 동일시하게 되는 경향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現代 共產主義라는 일반 개념과北韓 共產主義라는 파생 형태간의 공통성과 특수성 파악은 이러한 차이의 인식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1. 現代 共產主義의 몇가지 特徵

우리들이 현대 공산주의를論함에 있어서 無意識間에 빠지고 있는 함정은 소련을 위시한 各國 共産黨이 唯物史觀과 「마르크스」經濟學과 「레닌」의 革命戰略戰術理論 - 이 모든 것들은 공산당으로서 하나의 儀式的 修辭로서 언제나 사용되는 논리이다 - 을 앞세우면서도 그들은 無類의 經驗主義者들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소비에트」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행동실태를 「마르크시즘의 理論에 입각하고 있다는 형식적 연관성을 設定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1917年 이후의 소련의 모든 행위를 「마르크스·레닌」主義라고 했고(적어도 「러시아」革命 當時까지만 해도 세계의 知的 분위기나 사회과학의 발달 수준으로서 「마르크시즘」의 原理的 오류를 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르크시즘」과 「레닌」主義의 방정식화는 바로 절대적 타당성의 유일한 方法이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적 現實은 「스탈린」政策을 자아냈지 마는, 共產主義者들의 修辭力은 이것마저도 「마르크스·레닌·

스탈린 주의」라는 매우 거북한 공식으로 그들의 정통성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다. 「主義」라는 이름을 매고서는 한치라도 움직일 수가 없는 共產主義者들은 그들의 행동을 늘 「마르크스」나 「엔겔스」나 「레닌」, 또는 「스탈린」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현대 공산주의를 논하는 입장은 「主義」로서의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어떠한 경험적 토대에서 그들의 「現實」을 만들어 냈는가를 경험적·과학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마르크스」의 이론을 새삼 소개할 필요는 없다. 다만 1917년 이후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革命的 現實」속에서 「마르크스」이론과는 동떨어진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이름 밑에서 합리화하려고 하는가를 일변함으로써 現代 共產主義者들이 얼마나 「主義者」가 아니고 권력 유지의 功利主義者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軍隊

「마르크스」의 이론 중에서는 군대라는 개념이 나타난 문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革命的 발생 과정이나 「소비에트」정권의 보위·발전 과정에서 붉은 군대의 역할없이는 사실상 소련 공산당의 역사는 과거지사가 되든지, 현재와는 다른 것이 되든지 하였을 것이다. 「레닌」이나 「스탈린」은 世界革命的 기지인 소련이 자본주의 列國에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白系 露軍의 反亂, 2次대전을 통해서 그들은

비록 공산정권이라 할찌라도 그것을 유지하는 힘은 기본적으로는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非「마르크스」적 國家維持論에 도달하였다.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사태등 일련의 反蘇運動이 蘇軍의 군사적 탄압에 의해서 진압되었다는 사실은 공산권 내에 대해서도 사회·정치적 문제 해결을 군사적 방법에 의해서 수습한다는 「프알」의 態度가 堅持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것은 또 「러시아」가 「폴란드」, 「터어키」등과 같은 「러시아」식민지를 다스려 온 역사적 배경을 보면 알수 있는 일이지마는 그러한 태도는 「프롤레타리아트」정권 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소련은 그의 國家維持의 기본력은 軍事力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소위 자본주의 국가와 차이가 없는 것이다.

(2) 國家概念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단체에 들어서면 정치적 국가는 소멸하고 행정국가의 성격을 띤다고 했다. 行政國家란 국가관리에서 「이데올로기」의 統制機能은 없어지고, 순수하게 事物的 管理의 기능만을 가지는 국가를 말한다. 과연 그렇다면 「마르크스」와 「레닌·스탈린·호루시쵸프·브레즈네프」등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와 「티토·차우셰스쿠·코물카」·胡志明·毛沢東·金日成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오나시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社會主義陣營」의 여러 국가들의 현실적 발전 과정을 분석해 보면 - 특히 공업화, 경제관리 분

야에서 - 행정관리 면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공통성이 더 많은 반면에, 정치적 분야에서는 본질적 대립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마르크스」의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실용주의자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3) 歷史의 發展法則

封建主義→資本主義→社會主義(共產主義)라는 발전 방식은 위의 세계의 체제가 시간적으로 전후관계에 있다는 전제 밑에서 성립된다. 두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의 체제는 공산주의 역사관에서는 바로 價值序列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레닌」시대는 혁명의 초기였고, 사실상 소련은 자본주의 열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共存이라는 것은 「소비에트」의 존재 유지의 불가피한 방법이였지마는 「흐루시초프」의 평화 공존은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소련이라는 국가가 일정한 근대화의 단계를 겪고 미국의 사회·정치·군사 체제와 어느 점에서 매치가 되기 때문에 가능해진 平和共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唯物史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흐루시초프」 자신이 『마르크스나 「레닌」조차도 오늘날을 위해서는 致命的인 어느 새로운 힘을 예상할 수가 없었지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생각해야 한다』(「브카레스트」演說)고 했을 때 그의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방정식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적 모순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의 不動의 진

리를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즉, 그것을 선전적 공식으로 一方에 두는 동시에, 반면에 現實條件에서 가능한 행동은 행동대로 해나가는 이중성을 확립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자 자신들도 唯物史觀的 歷史發展은 그대로의 논리 범주를 유지하면서, 戰略戰術은 그대로 다른 영역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말하자면 歷史發展 問題뿐만 아니라 기타 여러 문제에 있어서 「마르크스」와 「레닌」의 방정식은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특유한 모순 면역성 - 경험적 차원에서는 위선·허위·배신에 대한 무감각을 조건화한다 - 을 가지게 한다.

(4) 人間 疎外 問題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혁명이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소외된 인간(勞働者)의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성격의 인간소외가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공산주의 이론에서는 없다. 다만 재산의 個人所有制가 모든 惡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것의 止揚으로 모든 문제는 지양된다고 볼뿐, 종교적 구제사상의 결론과도 같은 結論으로 끝나고 있다. 마르크스 이론의 空想性은 그가 그 자신을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점에서 空想으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17년 이후의 소련의 현실은 黨이라는 인간소외의 새로운 原器가 발생한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극단의 합리주의와, 일률적인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공산당에 의한 인간 소외는 바야흐로 「第二의 中世紀」를 빚어내

는 것임을 반세기의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5) 勞 動

노동 특히 노동 수탈은 공산주의 이론의 핵심 부분이었다. 이 문제는 동시에 人間解放의 핵심문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레닌」이 처음으로 「마르크스」를 배신해야 했던 일은 인간해방의 원리 [民主主義原理]에 입각한 노동·조합운동을 부정하고, 「勞動의 獨裁」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선언했을 때였다. 간단히 말해서 노동의 독재는 바로 노동 및 노동자를 黨의 獨裁 밑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마 「레닌」의 이 決定처럼 솔직하게 본심과 표현이 일치되어 있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그후에도 볼 수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자의 이중성이 그후로는 機制되었다는 말이다.

부족하나마 이상의 몇가지 점으로서 現代 共產主義가 古典 共產主義와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가 하는 원리적인 면을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시즘」과 현대공산주의를 방정식화 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선전적 차원의 일이며, 실제적 차원에서는 그들의 국가 권력의 유지 방법은 여타의 비사회주의 국가와 별다른 점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고전 공산주의의 의식적 이론이 革命 初期의 觀念的 분위기 때문에 그대로 헌법에 반영되어서 국가의 기본구조가 정해져서 금일에 이르게 된 것이다.

2. 北韓共產主義 極端의 變種

1945년 당시의 북괴의 文明史的 段階는 1917년의 「러시아」의 그것과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없었다. 구태어 차이 있었던 점이 있다면 「러시아」는 정치적 독립을 가졌었다는 것과, 「러시아」의 知的 분위기는 19세기 서구의 啓蒙主義 人本主義 그리고 合理主義가 社会階層的 根柢는 없었다고 할찌라도 사회분위기를 지탱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정치적 독립이 우리 민족에게 없었다는 사실은 언제나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운동에 이론적으로 「콘 바이어스」를 가지고 작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民族 獨立運動과 社会主義運動의 혼합이 불가피하였다. 毛沢東이가 延安에서 북부 중국일부를 통치하고 있었고, 「스탈린」이 国民党政府를 중국의 대표 정권으로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시대에서도 間島地方의 朝鮮人 共産黨은 中國共産黨의 支局으로 명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끊임의 북한 共產主義者들로 하여금 국가의 성립 근거를 지극히 배타적인 입장에서 추구하게 한 것이다. 「히틀러」의 「나치즘」의 발생이 소수 狂信的 「쇼비니스트」에서 시작된 것처럼, 북괴 정권의 성격이 정권수립 후 30년이 되어도 徒党的 性格이 날이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軍隊

1948년 2월 8일 소위 「人民軍」이 창설되었던 것은 소련 점령군의 韓國分裂政策의 일환이었으나, 그것을 금일에 와서는 소위 「마

르크스·레닌」主義的 革命武力인 朝鮮革命軍」의 직접적 계승자로 비약시킴으로써 人民軍을 그들의 이른바 「祖國統一 五대강령」, 「김일성의 四대 군사노선」의 주동 실천세력으로 앞에 내세우고 있다. 이것은 일제시대에 겪은 곤경에다 6.25 전쟁 때 경험한 「帝國主義 軍隊」에 대한 광적 공포감의 복합이라 할 수 있는 북괴 독특한 偏執狂的 外人憎惡의 표현이다. 그 強度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극렬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북한공산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반항적 요소가 강한 것은 北韓社會의 基幹을 이루고 있는 軍隊의 광적 극렬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2) 國家觀

人民軍의 족보가 「朝鮮革命軍」에서 시작된다면, 마찬가지로 북괴의 국가관이 김일성의 과거의 「게릴라」소집단을 準拠로 할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알 수가 있다. 예컨대 금년들어 北傀政權集團 수뇌들이 공식행사에 나타난 기회가 네 번 있었는데 (2월 8일, 2월 19일, 2월 24일, 2월 25일) 서열 10 번까지의 변동사항은 徐哲, 金仲麟 및 金英柱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었을 뿐 여타는 변동이 없었고, 변동이 있었다 할찌라도 특별한 뜻을 부여할 것이 못할 정도였고 오히려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10 번까지의 인물들의 대다수가 抗日武力 抵抗時代의 김일성의 「게릴라」집단 출신이 아니면 血緣關係, 또는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의식적 이론과 권력의 자아중심주의가 기계적으로만 결합되어 있는 전형이다.

(3) 歷史發展法則

唯物史觀的 3 단계 발전 법칙이 북한사회에 적용될 사회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북괴는 74년부터 「社會主義 經濟建設期」에 들어간다고 떠들고 있다. 이것을 뒷바침하듯 73년 末에는 소위 「社會主義 憲法」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1945년 당시 타도되어야 할만한 자본주의가 이북 땅에는 있지도 않았고, 그것은 內亂도 아니며, 더우기 革命도 아닌 소련 군대에 의한 일방적 점령으로 일제에서 부터 통치권을 탈취한 것이 「영광스러운 공화국 정권」의 시발이 아니었던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생긴 소련 위성국가가 「朝鮮人民共和國」이었다. 그것도 黑白選舉라는 강제적 절차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내걸면서 감행된 것이었다. 역사적 발전 단계 대신에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다면, 한때 가장 열렬한 소련의 衛星國家였던 북괴가 이제와서 가장 狂的인 「主體思想」의 發生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한낱 劣等意識의 表現에 불과한 것이다. 劣等意識이 집중적으로 表現되고 있는 것은 「朝鮮革命博物館」이라고 할 수 있다. 單一建物로서는 제법 큰 建物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박물관은 95개의 展示場이 있고, 총 길이는 4.4 km가 되나 건물 자체는 길이 210 M, 내부 면적 24만 ha라고 하며 상세한 관람을 하려면 4일이 걸린다고 한다. 박물관의 마당에는 23 M 높이의 김일성 동상이 서있고 그 좌우에는 238 명의 노동자·농민·혁명가 및 군인의 집단상이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레닌」의 묘소와도 비교가 될 이 박물관이 바로 김일성의 革命鬪爭史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는 非正常的인 신경의 소지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긍정 못할 것이다.

(4) 人間疎外

북괴의 社会文化史的 배경에는 인간해방의 계기가 없었다. 그들의 日帝로부터의 해방은 곧 金日成에의 복종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인간 해방의 뜻 자체가 없는 역사였다. 초인간적 노동의 랫가(大安體系, 靑山里方法, 千里馬運動, 平安速度 등등)는 약간의 生活條件의 개선뿐이었다. 이 노동의 랫가를 자본주의적 제산에서 환산하면 아마도 상당한 안락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모두가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말에서 清算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인간적 노력은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形而上學 속에서 虛空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아마도 북한 주민의 의식상태는 中世紀的인 것이라야만 견디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5) 勞 働

全國農業者大會나 工業者大會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생산 목표는 환상적인 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社會主義의 優越性」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직결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거의 모든 노력이 對南 四大軍事路線을 실행하기 위한 물자적 근거로 화한다면 北韓사람들은 노동을 전쟁 준비와 동일시할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방향에서 노동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체 사회 분위기를 언제나 전쟁적인 「히스테리」속에서 유지해야만 金日成의 공산주의, 즉 전체 사상의 허구성이 민중의 판단 앞에서 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조작이 북한공산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二 . 北 韓 經 濟 的 推 移

1. 北韓經濟計劃의 推移

북괴는 人民委員會 時代부터 시작, 다음 표 (P八一참조)에서 보는 바와같이 총 七개 계획을 二十七년에 걸쳐 실시해온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傀儡人民共和國수립 이전에는 불과 두번의 一年計劃이 있었을 뿐이고, 따라서 경제계획이 본격화된 것은 五〇년대 이래이고, 한국전쟁을 도발했던 一九五〇~五三년의 四개년은 경제계획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順位	名 称	通用年度	該当年度
1	1947 年度人民經濟計劃	1947	1947
2	1948 年度人民經濟計劃	1948	1948
3	人民經濟二個年計劃	1949~50	1949
6.25 武力南侵			
4	戰後 人民經濟復旧發展 三年計劃	1954~56	1954~56
5	第一次五個年 人民經濟計劃	1957~61	1957~60
6	人民經濟發展七個年計劃	1961~67	1961~70
7	人民經濟發展六個年計劃	1971~76	1971~進行中

이와 같은 경제계획의 변천속에 북괴는 아직도 초기부터 일관하여 유지하여 오는 計劃要素가 있고, 동시에 비록 그들은 계속하여 변치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계획요소도 있다. 그러면 계획요소별로 持續 또는 變位를 논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실의 종합적 意義를 고찰한다.

2. 經濟計劃 思想

북괴는 한국전쟁을 도발한 一九五〇년 이전의 三개 계획에 있어서는 경제계획의 기본 출발이 民族經濟의 건설에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른바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社會主義의 건설을 뚜렷한 計劃思想으로 앞세우기에 이른 것은 전후의 三개년 계획부터였으며, 특히 第一次 五個年計劃과 七個年計劃의 중반까지는 社會主義建設·社會主義工業·社會主義農村 등의 용어를 흔히 사용하여 사회주의를 계획 사상의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七개년 계획의 중반부터 그리고 六개년 계획에 와서는 김일성 개인의 교시를 계획사상으로 삼으려는 경향을 뚜렷이 하고 있다. 모든 經濟計劃에 관한 언급에 앞서서 으레 김일성 어록에서 관련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완전히 습관화되었다. 따라서 經濟計劃은 「김일성 교시」이며, 경제계획의 총화는 김일성에 대한 「총성의 보고」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北傀의 계획 사상이 변하는 것은 經濟計劃에 대한 기

본 개념이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는 데에 설명을 얻을 수 있다. 즉 초기의 民族主義 思想은 대중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中期의 사회주의는 이른바 종파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근자의 金日成主義는 개인 독재체제의 완성을 구가하기 위해서 나타난 政治戰略의 반영이 경제계획의 기본 사상이 된다는 것이다. 원래의 唯物論的 논리에 의하면 사회주의 다음에는 공산주의가 와야 하는 것이다. 하영든 앞으로 북괴는 경제가치적 합리주의를 경제계획의 사조로 설정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단념할 수 있다.

3. 經濟計劃 編成基調

경제계획의 編成基調로서 북괴는 정부를 수립한 전후기에는 植民地性 탈피라는 구호 아래에 經濟機關의 지배 집단의 대체와 管理系統의 재편성을 중요시하였으며, 당시 발표된 二〇개 政令이나 国有化法令 등의 制定公布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앞서 분석한 민족주의와 상부한 民族經濟의 건설이었다.

六·二五남침 후의 경제계획은 自立經濟의 건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련을 비롯한 東歐共產國家의 經濟援助가 있기는 하였지만 빈약한 것이었고, 동시에 김일성의 빨치산 經驗이 작용하여 자주경제의 기치를 내세운 것이다.

그러나 七개년 계획의 중반에 와서 국방 건설이 가속화되자

북괴는 자력경제 건설을 부르짖게 되었고, 이는 북한의 땅과 주민이 치니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기 위하여 自力更生이라는 명분을 필요로 한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한도에 이르러 이제는 六개년 계획에 언급도 없이 海外依存經濟로 기초적 전환을 단행하고 말았으며, 이는 단적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프린트」수입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일본에서 수입한 錦城「트랙터」工場(五年延拓条件)도 북한 대중에게는 자력 건설로 선전되고 있다.

이와같이 經濟計劃 編成基調가 달라지는 것은 간단히 말하여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過去에 김일성은 數次의 援助交渉團을 해외에 파견하였으나 성과를 얻지 못한데 대한 대책으로 자주·자력이란 말을 하게 되었고, 오늘의 日本 교역에의 의지도 일본의 政經分離原則을 이용한 것이 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이로써 北傀가 閉鎖經濟體制로 부터 開放經濟體制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4. 經濟計劃上的 産業水準

경제계획이 나타내고 있는 北韓 産業의 수준은 당연히 六·二五 이전에는 기존시설의 稼動復旧이었고, 다음의 전후 三개년 계획은 기존산업의 復旧建設이었으며, 그리고 五개년 계획에서는 復旧完了, 新産業의 준비·자체해결·假施設의 대체등이 주대상이 된 것이다. 그리고 七개년 계획 초에 병기생산에 국한된 製鐵과 기계공업에

관한 重工業 우선주의가 실천되었고 나머지의 六〇년대 後半은 「이미 조성된 뼈 사이에 살을 붙이는」 이른바 몇 가지 新産業의 完成을 주안점으로 한 수준에 불과 하였다.

七〇년에 발표된 六개년 계획에서 비로소 자동기능을 가진 生産 施設問題에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겨우 현대적 산업수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당초 六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업의 대체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차후의 基幹産業의 재건설은 일단 現代工業水準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본격화 단계는 아니다.

이와같이 북괴가 경제 계획 수준에 변화를 일으키면서도 매우 서대에 뒤떨어지게 된 것은 경제계획의 목표가 一次的으로 産業構造의 완성 또는 공업수준의 향상에 있지않고 오로지 병기 및 군수품의 생산에 한정되어 있었고, 이 목표의 달성은 總資源의 투입을 필요로 한 까닭이었다고 하는 해석을 불가피하게 한다. 따라서 六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 북괴는 국방 건설을 완료한 것을 언급한 것인데, 그러나 兵器, 軍需生産施設의 현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경제계획의 생리에 비추어 볼때 경공업·농업분야를 포함한 모든 산업을 現代的 수준으로 향상 시키는 일은 아직도 前途迷遠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5. 經濟計劃 規模

北韓經濟計劃은 소련의 경제계획 구성에 따라서 공업 생산목표, 농촌사회 생산목표, 그리고 社会 間接分野에 해당하는 기본 건설목표의 3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초기의 각 부분 내의 언급분야의 종류나 内容細分 化는 다소 확대되기는 하였지만 20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별로 확장되고 充實化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표적으로 北隗가 가장 宣傳에 주력을 두고 있는 工業分野를 보면 6개년 계획에 전력·광업·야금·기계·화학·建材·방직·식료품 및 其他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第1次 5개년 계획의 항목에 비하면 금속이 광업과 야금으로 분리되고, 석탄이 鎔業에 포함되었으며, 輕工業이 방직·식료품, 및 기타로 분리하고 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각 분야 내의 품목 나열은 6個年計劃에서 상당히 확대되었다.

예를들면 과거에 통조림으로 망라한 품목이 부식물·식용류·고기·남새(야채)·조미료·과실·청량음료·소금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이 공업분야로 등장되는 것이라기보다는 6개년 계획의 전시 효과를 위해 細目 擴大效果를 노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아마도 이러한 細目이 經濟計劃에 언급이 되지 않을때에 한국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공업이 形成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다만 兵器工業分野는

내부적으로 크게 擴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

6. 經濟計劃－資源動員方式

資本蓄積과 外國援助가 所要되는 投資資源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에서 北傀는 北韓住民의 總勞動力을 竭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經濟計劃을 作成하고 執行하는데 있어서도 이점을 크게 유의하였다. 북괴는 당초 重工業優先主義의 성과는 擴大再生産의 원리를 통해 生産施設이 확대되고 勞動力不足은 해소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初期의 經濟計劃은 집단화만 완성되면 計劃資源이 충족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五개년 계획이 초기에 개인 상공업을 抹殺하고 농촌의 이른바 協同化를 강요하였다.

그러나 노동력 부족은 더욱 深刻化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千里馬運動을 전개치 않을수 없었고, 이는 七개년 계획 기간에 大衆精神運動에서 連帶責任組織制로 가일층 강화되게 되었다. 환언하면 北韓經濟計劃의 진행에 있어서 노동력의 투입 비중은 당초 감소 예상과는 정 반대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에 對等한 북한 주민의 全生活時間과 全活動內容을 노동 자원으로 동원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의 經濟計劃은 建設의 進展과 더불어 개인 노동력의 투입이 증대하는 기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이는 共

産主義社会라 할지라도 김일성을 제외하면 그 전례가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은 사실은 經濟計劃이 노동자원의 투입 성과에 관하여 정당하게 따르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北僞가 반세기에 걸쳐 經濟計劃의 성과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軍事消費로 소멸시켜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괴의 경제계획은 북한의 주민을 노동하는 기제로 전제하고 작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7. 經 計 劃 上 的 海 外 問 題

北韓의 經濟体制은 완전 閉鎖主義 면서도 국내에서 생산치 못하는 것은 해외에서 조달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교역이란 국제간의 상거래라고 하기 보다는 海外購買의 의의가 강하다. 그러면 北僞는 海外購買資金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출을 해야 하고, 따라서 經濟計劃上 수출상품을 생산토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北僞의 생산에 관한 선전과 생활수준 사이에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수출로서 설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北僞의 輸出入은 七二年 이전까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海外輸出이 經濟計劃의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이라고 간주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은 軍事輸入은 貿易統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북괴의 경제계획은 수출부분을 명확한 언급 없이도 크게 배려하고 있는 반

면에 해외부분으로의 수입의 혜택은 근소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여하간 초기의 經濟計劃은 鉅産物의 輸出을 중요시하였고, 중기에 와서는 農作物・織物類・工芸品 등이었으며 근자에 와서는 시멘트・水産物・食料加工品・林産物 등이 수출 상품으로 동원되고 있다. 따라서 북피는 몇가지 품목에 대한 개인당 생산량이 높은 것을 과시하고 있지만 실은 그 대부분이 해외로 수출이 되고 그 댓가는 병기・군사장비와 같은 소비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따라서 六個年計劃에도 수출용 상품의 생산이 內需用과 같이 假裝되면서 강조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 품목은 과실류・清涼飲料・肉類加工・쌀・水産物・불고기 통조림・淺海養殖・絹織物・果実酒・시멘트・鉄・鉛石・석탄 등으로 상당한 수에 달하고 있다.

8. 經濟計劃 管理

북피는 경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중앙에 국가계획 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은 이른바 政務院의 經濟副總理가 임명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계획이 첫째 당의 지시를 반영하고 행정 각 분야에 걸쳐서 조정이 되고 그 시행이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다. 지방은 모든 행정기능이 인민위원회에 단일화되어 있으므로 경제계획 행정도 역시 地方各級人民委員會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경제 건설의 계획과 실적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나자 북피는 五개년 계획 기간에는 중앙당 간부의 現地指導運動을 전개

하여 중앙과 지방 사이에 발생하는 차질을 해소하여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여의치 않음이 판명되자 7개년 계획 기간에 와서는 大안의 사업 체제라고 하여 모든 경제기관에서 당 세포 우위의 활동을 전개토록 하였다. 그래도 계획과 실적 사이에 불실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末端계획 數値를 열성적인 균중토론을 거쳐 책정토록 하였다.

이런 적극적인 조치에도 經濟計劃의 有為性은 확보되지가 않아 金日成은 마침내 지방에 國家企劃委員會 直屬下部機關을 두고 국영 기업소, 협동농장에 까지 職員을 직접 파견, 근무토록 하였다.

北隗는 計劃經濟의 결함을 경제계획의 강화를 통하여 다스리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소련, 또는 동구 공산주의 국가의 경향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같이 해결 방법이 다른 것은 소련이나 東歐共產國家는 경제전문 관료가 경제계획을 좌우하고 있는데 비하여 北韓에는 강압적 독재 사상이 지배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환언하면 과거의 政治史는 以熱治熱과 같이 專制者는 專制의 결함을 더 혹독한 전제로서 다스리는 것을 가르키고 있는데 북괴의 김일성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9. 맺는 말

北隗의 고도로 발달된 弘報技術은 오늘날 북괴의 경제현실이 북괴의 경제현실이 북괴의 경제 계획에 흡사하다는 현혹을 자아내게

하려고 한다. 그런데 南北對話가 시작된 시기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경제현실은 경제계획이 가르키는 것과는 너무도 현격한 차이가 있음이 명확히 판명되게 되었고, 이는 널리 많은 필자에 의하여 分析, 考察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북괴의 위장 경제 건설은 經濟計劃의 動態的 측면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으며, 이를 시도하는 것이 本稿의 목적이었다. 그리하여 北傀 經濟計劃은 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요구, 국제주변정보, 군사생산의 요구, 노동자원투입 소요, 海外購買資金 調達, 그리고 전제적 관료체제의 요건 등의 변화로 變位가 일어나고 있으며, 경제복지 향상이 아닌 정치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서의 本質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다.

三 . 豫 算 . 社 會 總 生 產

本稿에서는 북괴의 豫算會計制度, 豫算과 社会總生産(北韓에서는 總社会生産物이라고 함) 및 예산과 六個年計劃에 관하여 간략하게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북괴의 경제실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하나의 方法은 그들의 예산을 매년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괴는 一九四六~七四년간 그들의 諸 經濟值 중, 오직 예산액만을 일관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 않기 때문에 예산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

1. 豫算會計制度

(1) 豫算의 編成

北傀 憲法 第三十二條에 의하면『國家는 國家豫算을 編成하여 執行한다』고 되어 있고, 同 第七十六條 一〇項에 의하면『最高人民會議은 國家豫算을 承認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 세계와 마찬가지로 북괴에 있어서도 행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最高人民會議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다.

북괴의 中央豫算機關은 政務院의 財政部이다. 북괴는 一九四六年 八月에 그의 예산회계제도를 규정한「北朝鮮 會計規程」을 제정했다. 우리의 旧財政法, 現 豫算會計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규정은 지방재정과 국영 사업체의 회계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중앙 예산 기관인 財政部 財政局이 중앙의 예산안을 편성한다. 會計單位로는 중앙과 각급 地方行政機關의 예산에 각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中央과 道の 예산안은 전년도 一〇월三十一일까지, 기타 예산안은 十一月 三〇일까지, 편성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同 規程 第十二條에 의하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경비가 부족한 때 또는 지연치 못할 경비가 필요한 때는 추가, 혹은 更正豫算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피치 못할 예산의 부족, 또는 임시 필요한 예산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豫備費를 설치할 수 있다. 예산은 각 회계 단위마다 이를 편성하되 總計 豫算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총계 예산은 一般會計와 모든 特別會計의 합계를 뜻하는 것으로 붙이된다. 사업체별 특별 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豫定貸借對照表 및 豫定損益計算書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北傀의 이른바 국가예산에는 지방예산도 포함된다.

(2) 豫算의 審議・議決

소위 國家豫算案의 審議는 매년 四月(今年에는, 三月)에 개최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 확정되는데 이른바 북괴 제정부장이 去年度 國家豫算執行에 대한 결산과 신년도 국가예산에 대하여 보고하면 대의원들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토론을 한 다음 無修正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의결 시기도 매년 동일하게 四月이다. 최고 인민회의에도 예산심의위원회가 있다. 요원은 七명이다. 北傀는 예산안과 결산보고서를 동시에 최고인민회의에 제출하는 특

색이 있다. 북괴의 회계년도가 매년 一월一일에 개시되나 最高人民會議은 四월에 소집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하기 때문에 북괴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약 四개월간 매년 暫定豫算을 집행한다.

(3) 豫算의 執行

예산배정과 자금 공급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四分期別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一年을 四期로 나누어 매기마다 그 実行豫算을 작성하고, 그 実行豫算에 의하여 실행토록 하고 있다. 실행 예산을 작성한 때에는 각 상급기간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각 년도 歲出豫算의 定額은 타년도에 속한 경비로 지출할 수 없다고 하여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강행되고 있으며, 세출 예산의 定額은 예산에 정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豫算執行의 伸縮性을 기하는 한 방법인 예산의 移用이나 轉用이 엄격히 제한을 받는다. 즉 款項의 금액은 상호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고 있다. 우리의 繼續費 制度같은 것은 없는 것 같다. 租稅 및 기타 수입은 자격있는 當該公務員이 아니면 조사 또는 收納할 수 없으며, 지출은 각급기관의 재정 책임자가 행하며, 豫算主體의 책임자는 지출에 관하여 그 직속 부하직원에게 그 권한을 분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決算 및 檢査

(가) 決算

중앙의 경우 새 정부 새 정국장은 중앙예산의 결산을 出納閉鎖後 (우리의 出納整理期間) 三개월 이내로 완료하여 예산의결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예산의 결산은 출납폐쇄후 二개월 이내로 완료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매년도 예산은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로 이를 공고하며, 매년도 결산은 출납폐쇄후 三개월 이내로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檢 査

財政部 財政局長은 각급 지방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할 권한을 가지며, 각급 행정기관의 長은 하급기관의 예산을 검사할 권한을 갖는다.

會計檢査는 一年에 반드시 二회 이상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은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으로써 책임이 면제된다.

2. 豫算과 社會總生産

一九七四년도 북괴의 세입예산은 九八억 一백二〇만원 (四七억八천 一백만달러 一九七三年 二월 달러貨의 再平価切下後 換率은 一달러 당 二〇五원) 으로, 그 규모가 방대한 것처럼 보이나 私經濟部門이 없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예산이 자유 세계의 그것보다 경제 규모에 비하여 훨씬 큰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북괴에는 GNP 개념이 없으니까, 社會總生産에서 예산이 얼마의 비중을 점하는가 알아 보기로 한다.

(1) 社会總生産의 概念

사회총생산이란 일정 기간, 예컨대 一年간에 생산된 물질적 富의 총체를 말한다.

상업(生産過程의 延長으로서의 業務는 除外)·신용·국가관리기관·과학·문화·교육·예술·보건부분 등은 사회총생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 부분들은 비생산부문으로 된다.

사회총생산의 가치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減価償却 및 中間材)
- ② 자기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
- ③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國民所得이란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한 나머지 부분 즉, 그 해에 새로 창조된 가치를 말한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勞動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가치와 사회를 위한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생산물의 가치를 합한 것과 같다.

現物형태로 보면 국민소득은 국내에서 소비될 消費財와 생산확대에 돌려지는 生産手段으로 이루어진다. 소비재의 대부분은 그 해에 소비되며 일부는 축적된다.

(2) 社会總生産에 대한 豫算의 比重

북괴는 그의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을 一九六五년도까지만 발표했고, 그후로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음 표에서 북괴가 발표한 一九六一~六五년간의 사회총생산과 當該年度 豫算額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사회총생산에서 예산이 점하는 비중을 구했는데 동기간

北韓의 社会總生産 推計

(單位：百萬圓)

	社会總生産	國民所得	歲入豫算	總生産에 대한 豫算의 比重(%)
1961	7,560.9	3,720.0	2,400.0	31.7
1962	8,398.3	4,132.0	2,896.0	34.5
1963	9,191.0	4,522.0	3,144.8	34.2
1964	10,110.0	4,974.2	3,498.7	34.6
1965	10,481.2	5,003.5	3,573.8	34.1
1966	10,799		3,671	34.0
1967	12,076		4,106	34.0
1968	14,774		5,023	34.0
1969	15,585		5,319	34.0
1970	18,329		6,232	34.0
1971	18,699		6,357	34.0
1972	21,854		7,430	34.0
1973	25,292		8,599	34.0
1974	28,827		9,801	34.0

註：(1) 1961~65년간의 社会總生産 및 國民所得은 북괴의 발표액임.

(2) 1966~74년간의 社会總生産은 필자의 추계임.

평균 비중은 三四%였다. 북괴의 예산이 그의 社会總生産에서 점하는 비중 三四%를 이용하여 一九六六년 이후의 社会總生産을 구할 수 있다. 즉 예산의 비중을 三四%로 잡고 세입예산은 既知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하여 본 결과, 一九六六년도의 사회총생산은 四一억八천五백만 달러, 一九七〇년도는 七一억四백만 달러, 一九七三年도는 一二억三천七백만 달러가 되었다.

북괴의 사회총생산과 국민소득의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것들이 우리의 GNP 및 국민소득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북괴의 사회총생산을 그들의 GNP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筆者는 우리의 GNP 개념과 사회주의 경제의 사회총생산 개념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分析·計算한 다음에야 북괴의 GNP를 계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여하튼 북괴의 財政規模는 그의 GNP 중에서 (우리는 正確히 計算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큰 몫을 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그들의 豫算規模가 큰 것이다.

북괴의 歲入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주로 천 값 등 소비재의 값을 엄청나게 매겨 거두어 들이는 去來收入金으로 충당된다.

북괴의 국민소득은 그의 사회총생산의 五〇%에도 약간 미달하고 있어, 사회총생산 중에서 소비된 생산수단을 보상하는 부분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3. 豫算과 六個年計劃

(1) 豫算과 基本建設投資

社會主義體制下的 북괴에 있어서 經濟計劃에 策定된 투자 財政은

주로 재정에서 부담한다. 民間部門이 없기 때문이다. 六개년계획의 총투자액은 발표되지 않았고, 다만 同計劃期間의 기본건설투자액은 一九六一~七〇년간(七個年計劃)에 투자된 자금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 중 七八%가 생산적 건설에, 二二%가 비생산적 건설에 배정되리라고 했다.

그리하여 六개년계획 기간 중, 총공업생산은 二.二배, 그 중 생산수단 생산은 二.三배, 소비재 생산은 二배로 늘어나며 공업생산은 연평균 十四%의 성장율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그그런데 七개년계획에 計上된 基本建設投資總額은 七〇억원이었다. 기본건설 투자란 확대재생산을 이루기 위한 신설 개조 복구 등의 공사나 이에 관련된 일련의 작업의 고정 자산에의 투자를 뜻한다.

基本建設投資額과 豫算

(단위 : 百万원)

	1961	1962	1963	1964	1965
歲出 豫算	2,338	2,728	3,028	3,418	3,476
基本建設投資額	593	650	685	756	848
比 重 (%)	25.3	23.8	22.6	22.1	24.4

북괴는 一九六六년부터 豫算報告에서 기본 건설투자액도 밝히지 않고 다만 前年度比 증가율만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趨勢分析으로 그 이후의 기본 건설투자액을 추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위의 表에 의하면 一九六一~六五년간, 기본건설 투자 총액이 세출 예산에서 점하는 비중은 평균 二三%이다. 一九六六~七四년간 기본 건설 투자의 前年比 증가율이 同年 세출예산의 증가율보다 낮았던 해는 一九六九년(十一%增) 뿐이며, 나머지 해들의 증가율은 세출예산의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一九七三년도의 경우, 歲入豫算의 증가율은 十二·五%임에 반하여 기본건설 투자는 三〇%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最近年間 기본 건설 투자액이 歲出豫算의 三〇%정도를 점하지 않나 추측된다.

그렇게 되면 금년도의 기본 건설투자는 약 三〇억원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 투자액은 七개년계획에 계상된 기본 건설 총 투자액의 四〇%를 약간 상회한다.

(2) 豫算과 六個年計劃 早期達成与否

지난 二月十一일 北傀労働党 中央委 第五기 八차 全員會議에서는 六개년 계획을 一年 단축하여 一九七五年一〇월一〇일까지 완수할 것을 결정하였다. 어떤 국가의 경제계획에 있어서나 계획의 성패는 주로 투자 재원의 조달 여부에 달려 있다.

북괴의 六개년계획의 조기 달성 여부도 투자 재원을 재정적으로 뒷바침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북괴는 六개년계획의 농업생산 중 穀物生産 목표는 금년에 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어, 工業生産 목표를 一九七五年 말까지 달성하는가가 문제로 되고 있다.

七個年計劃期間 歲入豫算의 연평균 증가율은 十二.一%였고, 同期 尙公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十二.八%였다. 따라서 공업생산 증가율과 세출예산증가율은 거의 일치한다고 볼수 있다.

당초 六개년 계획에 의하면 공업생산은 六년간에 二.二배 증가할 계획이었고, 그러자면 연평균 十四% 공업생산이 증가하여야 한다.

공업생산이 연 十四% 증가하려면, 七개년계획의 전례로 보아, 세출 예산도 十四% 정도 증가하여야 그에 상응하는 투자새원을 조달하리라고 추정된다 (七個年計劃期間과 六個年計劃期間, 歲出豫算에서 軍事費가 점하는 比重이 一定하다고 前提한다면). 六개년 계획의 工業生産목표를 一年 단축하여 一九七五年 말까지 달성하려면 연평균 공업생산 증가율은 十七%가 되어야 한다. 북괴는 一九七一~七三年간 연평균 工業成長率이 十七%였다고 발표했다. 同期間 북괴가 발표한 세출예산 증가율은 一九七一年에 二四%, 一九七二年에 十七.二%, 그리고 一九七三年에 十二.五%였으며, 따라서 동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十七.九%가 된다.

一九七四年과 一九七五年에 세출예산증가율이 十七% 정도가 되면 同期間 공업생산 증가율도 약 十七%가 되어 一九七五年 말에 六개년 계획은 一年 단축하여 달성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一九七四年도의 歲出豫算은 前年比 十八%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위에서 북괴가 발표한 예산액과 諸증가율을 토대로 하여 제정에서 조달되는 투자액과 그에 따른 공업 성장율을 분석하여 보았다.

북괴가 발표한 수치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

북괴의 경제가 발전하여 그 구조가 점차로 복잡하게 되면 경제 성장율이 떨어지리라는 觀測도 있다.

베드글레이 (John.H.Badgley) 는 북괴 경제가 命令經濟 (Command Econmy) 이고, 정치적으로는 唯一體制 (monistic political system) 이기에, 북괴사회와 그 경제가 점차 복잡화됨에 따라 그것들은 경제발전의 阻害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베드글레이」는 一九六三~八五년간, 북괴의 국민소득이 연 六%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一九七一~七五년간 一人당 國民所得은 연三.二五% 증가하리라고 예측하고 있다. 註『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Vol22, No. 1, Oct. 1973,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50 ~ 151)

북괴는 六개년계획 기간에 국민소득을 八〇% 증가시킬 계획인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동계획기간, 年평균一〇.三% (七個年計劃期間実績은 八.九%) 씩 국민소득이 늘어야 한다. 만약 六개년계획을 一年 단축한다면 국민소득 증가율은 十一.八%로 되어, 「베드글레이」教授의 豫測値와는 二배의 차이가 난다. (兩者의 國民所得 概念이 同一하다고 假定하면).

一九七三년도 北韓주민 一人당 豫算負額担은 二백六십二달러였는데, 이것은 北韓주민들이 얼마나 무거운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북괴 共産集團은 六개년계획을 一年 단축하려는 그들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하여, 앞으로 二년동안 북한주민들을 더욱더 채찍질하리
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四 . 北 韓 의 工 業

1. 北傀工業의 基本路線

北傀는 經濟의 목적을 자기완결적인 자립경제를 확립하는데 두고 重工業優先主義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重工業 우선정책은 「마르크스」가 말한 확대재생산의 일반 합칙성과 관련이 있을 뿐만아니라, 社會主義國家의 물질적·기술적인 토대가 되는 대규모 기계제 생산과 일치하고 있다. 물질적·기술적인 측면에서 자력으로 국민경제를 건설하기 위해 공업부문 중 금속·기계·연료 및 동력등 주요부문의 생산이 증대되어 生産基地가 건설되어야 한다. 北韓에서는 자기 완결적인 자립 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경제발전의 重点順位를 중공업·경공업·농업으로 정했다.

그러므로 社會主義工業化를 추진하기 위해 중공업 우선적인 사회주의 공업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社會主義國家의 물질적·기술적인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工作機械生産을 중심으로 기계공업을 단기간에 이룩하면서 低次元的인 자급자족 경제체제를 확립하는 동시에 戰爭·對備를 위해 재래식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國防力을 강화했다.

북괴는 중공업 발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사회적인 생산물에 대한 工業生産額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음에 비해 農業生産額의 비중이 감소되었다. 북괴는 공업부문에서 기계공업·금속공업·화학비료공업 및 전력부분등 중화학공업을 우선적으로 건설했

다. 그 결과 농업은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해 공업의 투자재원뿐만 아니라 공업노동력원을 공급하는 동시에 도시공업인구의 식량을 공급하면서 희생해 왔다. 한편 重工業優先政策은 중공업과 경공업간 및 공업과 농업간의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북괴는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輕工業部門에서 七개년 계획기의 최종년도인 一九七〇년에 道 및 郡經營單位인 中小規模工場을 대대적으로 건설 확장하는등 지방공업을 확충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민의 集團生産을 발전시키는 집단경제를 강화하면서 농업생산의 유기적인 구성을 고도화하는 농업의 기술개혁을 도모하여 우선적으로 식량생산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工業原料를 확보했다.

上記에서는 北傀工業의 基本路線을 개관했으나 下記에서는 최근 北傀工業 상황을 관찰하겠다.

북괴는 七개년 계획을 「社會主義工業化의 과제를 수행한다」는 기본노선하에 집행중 곤란을 거듭하다가 三개년을 연장하여 一〇년만에 겨우 計劃目標를 달성했다. 북괴는 三개년연장 이유를 國防. 建設과 經濟建設의 併進路線 채용에 따른 國防費 부담의 중압때문이라고 공식 발표를 했으나 그 근본원인은 구조적 결함에 있다. 北傀의 工業成長率은 六三年. 六六年. 六九年 등 三회에 걸쳐 심한 하강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구조적 결함에서 온 것이다. 七개년 계획의 목표가 一九六〇년 기준으로 工業總生産額 三.二배, 생산수단 생산액 三.二배, 消費財生産額 三배이던 것이 그 실적은 각각 三.三배, 三.七배, 二.八배가 되어 소비재생산이 크게 뒤떨어져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갭이 크다. 이러한 갭은 一九七〇년十一月 제

五회 노동당대회까지 지방공장을 一, 七六〇여개소나 새로이 건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심화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북괴는 一九五三년 이후 중공업을 농업부문과 소비재공업부문의 희생위에 건설했으나 중공업과 경공업 및 공업과 농업이 연속되는 擴大再生産構造가 아니고, 중공업과 군수공업 혹은 일부 수출과 직결되는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는 구조적 결함을 노정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소비물자생산이 부진해 労働者의 消費生活을 희생시킴으로써 노동자의 勞動意欲이 저해되니 増産政策에 일대 암영을 던지고 있다.

2. 소위 六個年計劃 産業政策

북괴工業은 七개년 계획에 의해 일정한 수준과 규모에 도달했으나 다시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려는 새로운 정책을 설정해야 했다. 북괴는 六개년 계획에서 『공업에서 약한 부문을 보강하고 없는 部門을 새로 건설하여 공업부문을 完備한다』는 공업부문 내부구조의 완비와 『工業原料의 六〇~七〇% 이상을 国内原料를 사용한다』는 工業主体性의 강화등 기본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곧 자급자족 공업화 방식을 선언한 것이다.

또한 六개년 계획의 産業政策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鐵鋼工業—자립적인 발전을 강화하면서 電氣製鐵 方法과 國產 石炭 使用方法을 연구해 『코크스』炭 輸入을 감소시키며 粒鐵, 粗鋼生産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海綿鐵, 還元球團鉍生産을 추진하는

동시에 鋼種을 증대시키며 강질을 향상시키고 한편 圧延鋼材의 품질과 규격을 증가시킬 뿐만아니라 二次금속가공제품 생산을 급속히 發展시킨다.

나. 非鉄冶金工業—국내에 풍부히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해 알루미늄을 비롯한 輕金屬製品 생산을 급속히 발전시킨다.

다. 化學工業—工業原料의 증산과 경제적 자립성의 강화를 이룩하기 위해 無機化學工業과 有機化學工業을 더욱 발전시켜 화학비료와 농약을 增産시킬 뿐만아니라 化學纖維·合成樹脂 및 합성고무등의 生産基盤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석유화학 공업을 창설한다.

라. 機械工業—技術革命과 생산력 향상을 위해 國民經濟諸部門과 大自然改造事業에 필요한 능률적이며, 경제적인 機械設備를 增産할 뿐만아니라 대형기계·선박·및 전자공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消費産業用 單能설비기능 및 공작기계를 增産한다.

이상과 같은 정책에서 북피는 自然資源과 化學原料를 개발 이용에 의한 공업의 자립화에 一차적인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술혁명을 위해 기계공업에서 대형화 및 자동화의 기계류를 증산하는데 二次적인 중점을 두고 소비재공업은 여전히 부수적인 것이다.

3. 北 鬼의 總勞動力化政策

북괴는 一國規模의 자급자족적인, 고도공업화를 목표로하여 연료와 광물등 자원개발과 化學原料開發을 통해 달성하려고 한다. 현재 선진공업국에서는 高度工業化를 原油輸入에 의한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을 통해서 도모하고 있는데 북괴는 공업화를 국산자원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니 공업과 농업간, 생산재생산과 소비재생산간, 생산력수준과 생활수준간의 겹이 深化해 構造的欠陥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六개년 계획수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다음에 六개년 계획에 있어서 技術革命의 과제는 『노동자를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동시에 노동력 부족을 해소한다』인데 전자는 북괴의 노동이 얼마나 苦役化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후자는 중공업 건설에 대량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과 전산업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업·농업 및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기술혁명을 전개하고 있다. 즉 공업부문에서는 중노동의 해소, 고열노동의 해소등 기술혁명의 三대 과제를 기계화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기계화에 의해 농촌의 노동력을 절감하고 있다. 가정에서는 식료 가공제품과 가정용품 공급을 증가시켜 부인의 노동력을 절약하고 있다. 이렇게 각 부문에서 절약된 노동력이 공업생산에 동원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에로의

의 노동 동원이니 전국민의 노동력화 정책이다.

상술한 工業政策과 技術革命政策을 결부해서 종합 검토하면 북괴는 一國規模의 자급자족적인 공업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연자원과 화학원자재를 개발·이용하는 목적으로 기술혁명과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화에 의한 자동화하는 기술혁명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북괴는 한정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小國이며 非開放體制下에 경제건설을 강행하면 할수록 농업과 공업간, 重工業과 輕工業間의 갭이 더욱 심화해 구조적 모순이 현저하게 된다.北傀는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全食料品 생산의 공업화, 농업의 공업화등 전국 공업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경제계획 관리의 국가권력이 비대화 및 만능화되어 국민경제가 경직화하게 된다.

4. 北傀 主要工業 建設目標

北傀는 七개년 계획의 최종년도인 七〇년에 목표를 무리하게 달성하기 위해 무계획적·무질서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동원된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의욕이 상실되어 勞動生産性이 저하했다. 六개년 계획에서는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勞動力配置의 합리화」 「生産의 組織化」 「勞動秩序의 嚴格化」 들을 實施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노동자에 대한 관료적 지배가 강화되었을 뿐 진정한 勞動生産性의 低位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六개년계획 工業수행 상황을 七一年부터 연도별로 목표와 실적을 개관해 보자.

七一年도 公업부문 상황은 기계공업과 화학공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비재공업은 既存地方工場을 완전히 稼動하는데 지나지 않았다. 新規建設部門으로서는 ① 西頭水發電所 ② 北倉火力發電所 ③ 雄基火力發電所 ④ 原油加工工場 ⑤ 金策製鍊所의 鋼鐵職場 및 圧延職場 ⑥ 黃海製鍊所의 燒結炉職場 및 還元球團鉍職場 ⑦ 合成 고무工場 ⑧ 良策機械工場 ⑨ 五月紡績工場 및 九月紡績工場 ⑩ 新浦港과 七대 조선소 건설등 一〇대 목표를 설정했다. 七二년도 및 七三년도 公업부문 상황은 一〇대 신규부문 건설 목표하에 공업이 수행되었기 때문에 七一年도 工業狀況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七四년도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공업 목표 상황은 六개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다음번 전당대회 연도의 一〇대 건설 목표인 ① 一억 二〇〇〇만톤의 鋼鐵生産 ② 五〇〇억 KWH의 電力生産 ③ 一〇〇만톤의 有色金屬生産 ④ 一억톤의 石炭生産 ⑤ 一억二천만톤의 시멘트 생산 ⑥ 五〇〇만 機械金屬生産 ⑦ 五〇〇만톤의 水産物生産 ⑧ 一, 五〇〇만톤의 化學비료생산 ⑨ 一〇만정보의 開墾 ⑩ 一, 一〇〇만톤의 양곡생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건설투자를 전년의 一.五배로 늘렸다. 七四년도 公업부문에서는 트랙터 생산과 대형기계 제작에 一차적인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화학공업 전재공업 및 경공업 중 電氣밥가마工業에 二차적인 중점을 두고 餘他工業은 부수적인 것이다.

〈表1〉 各年度・財政報告에 의한 主要工産品の 対前年値数

		71年 目標	71年 実績	72年 目標	72年 実績	73年 目標	73年 実績	74年 目標
鉄	銅工業		—					
	鋼鉄	—	—	1.3	—	1.2	—	—
	圧延鋼材	1.4	—	1.2	—	—	—	—
	銃鉄	—	—	—	—	1.3	—	—
	粒鉄	—	—	—	—	1.4	—	—
化学工業	化学肥料	1.2	—	1.3	—	1.3	—	—
	農薬	1.5	—	1.4	—	1.8	—	—
	化学纖維	1.7	—	1.8	—	1.6	—	—
	合成樹脂	2.3	—	—	—	—	—	—
	材料工業							
機械工業	시멘트	1.3	—	—	—	—	—	—
	工作機械	2.6	2.3	1.4	6個年 計劃目標을 과	—	—	—
	自動車	—	—	1.5	1.4	1.4	—	1.4
	트럭	2.1	1.2	2.3	1.8	1.8	—	2.3
	輕工業							
輕工業	綿織物	—	—	1.2	—	—	—	1.3
	內衣類	1.1	—	1.2	—	1.2	—	—

매년 재정보고에서 발표된 주요공산품에 대한 목표와 실적의 前年倍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上記表에서 各工産品目은 거의 전부 그 目標値는 있으나 그 실적치가 없는데 이것은 생산실적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推測이 되고 그 目標値와 실적치를 발표한 공산 품목은 工作機械·自動車와 트랙터등 三개 품목에 불과하며 그중 工作기계는 七二년에 六개년 계획 목표를 돌파한 것으로 발표했다.

각 연도 재정보고에 나타난 주요공업 건설 목표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鉄鉞工業關係에서는 七一年 예산에서 「金策製鍊所의 鋼鉄職場과 圧延職場, 黄海製鍊所의 燒結炉職場과 還元团鉞職場」의 건설, 七二년도 예산에서 「金策製鍊所의 코크스炉와 混結炉의 완성, 一〇〇만톤 능력의 圧延工場, 제장소에 박관냉간압연직장과 와이야로프職場」의 新設등을 목표로했다. 그중 七三年 말까지 완성된 것은 김책제련소의 鋼鉄職場 개조공사와 코크스炉 건설 및 黄海製鍊所의 燒結炉 건설 뿐이다.

(2) 非鉄金屬工業關係에서는 七〇년도 예산에서 알루미늄을 비롯하여 경금속생산 기타 건설을 목표로했다.

(3) 化學工業關係에서는 七〇년도 예산에서 원유공장과 합성고무 공장 건설을 목표로했으나 그후 진척상황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

중 제2석유화학 기지는 興南地區에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七三年 예산에서는 「安州지구의 납사熱分解, 고압폴리티렌·아닐론合成工場」 「西部地區에 대규모 비닐론공장, 염화비닐공장」 건설을 목표로 했다. 七一年도 예산에서 「二·八비닐론工場, 염화비닐공장」의 확장을 목표로 했다. 七一年도 実績으로서는 「三만톤 능력의 二·八비닐론공장과 三·五만톤 능력의 염화비닐공장」이 완성되었으며, 七二年도 실적으로는 「五만톤 능력의 二·八비닐론工場과 五만톤 능력의 本宮 염화비닐공장」이 확장되었다. 그 결과 비닐론 및 염화비닐은 七二年에 六개년 계획치를 돌파했다고 한다.

(4) 輕工業關係에서는 七一年도 예산에서 「沙里院紡織工場·江界紡織工場·編織物工場·日用品工場·被服工場·食料品工場」建設을 목표로 했다. 「各道에서는 식료품 單能기계공장과 종합기계공장 및 피혁공장」 「市·郡에서는 야채 및 과일가공공장, 육류 및 어류가공공장, 냉동공장」건설을 목표로 했다. 七二年도 예산에서 「대규모 紡織工場·編織物工場·製糸工場·製靴工場」 「各道에서는 유리공장·소오다공장·염산공장을 비롯하여 中小規模의 化學工場」건설을 목표로 했다. 七二年도 실적으로는 「九월 방적공장·沙里院 직포공장·평양제2방적공장·평양피혁공장·平壤비닐靴工場·평양·신의주 및 원산을 비롯하여 각도 소재지에 현대적 편직공장, 모든 시에 부인복 및 아동복공장을 完成했다. 또 경공업 이외의 지방공업에서는 「각도에서 鐵鋼工場·시멘트工場·鑄鐵管工場·비닐管工場·煉瓦工場·炭酸소오다工場·가성소오다工場·電動機工場 및 單純板板工場」을 건설했다.

상술한 바와같이 실적치를 목표치와 대조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많은 의심점이 있다. 최근 북괴의 공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경공업부문에서 소비재 공업의 지방화 방식을 지양하고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방적·피혁·비닐靴·繃織工場 등을 집중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七·四典同声明 이후 북괴는 消費物資生産이 크게 뒤떨어져 있음을 의식하고 돌격적으로 평양 중심으로 대규모 경공업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괴는 생산중심의 계획을 크게 수정하고 중앙적 대규모공장과 연결하는 하청공장을 건설하는 등 경공업의 系列化 形成을 지향하고 있다.

5. 結 論

현시점에서 북괴의 工業을 보면 가장 뒤떨어져 있는 石油化學工業·輕金屬工業 및 消費財工業에서는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이 七一年 연두사에서 지시한 一〇대 건설목표는 六개년 계획기에 필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계획은 四개년에 접어들어 이미 절반이 지나 중반단계에 있으나 그 실적은 그 절반 이하에 지나지 않으니 북괴의 경제는 큰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이 根本的 原因은 북괴경제의 구조적 결여성과 경직적인 중앙집중적 計劃管理制에 있다. 북괴 경제는 공업화의 초기단계에서 사회주의 선진국의 새로운 기술의 도입, 풍부한 노동력과 未開發 自然資源의 賦存 등으로 急速한 공업발전을 이룩하였으나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勞動力의 不足, 資源의 欠乏, 技術開發의 不振 등의
제 여건하에서는 기업의 자주성, 利潤原則, 價格, 市場메카니즘 등 자
본주의 경제적 요소를 가미한 計劃管理經濟體制를 도입해야만 공업
화의 中期 단계에로 이행할 수가 있다.

五 . 北 韓 的 農 業

1. 農業集團化의 過程

북괴정권이 農業의 집단화를 실시하여야 했던 이유는 대체적으로 두가지를 지적할수 있다. 첫째로 농민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지 않는한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은 불가능하다는 그들의 입장이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론에 의하면 「農村에서 小農經理가 존재하는 한 생산력의 발전을 기할수 없으며, 또한 낡은 생산관계에서 벗어날수 없고, 농민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날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하면 농촌과 농민문제의 해결은 사회주의 혁명의 전략적 기본문제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는것이며, 또한 농촌문제는 특히 「勞動階級의 同盟者로서의 농민」의 사회·경제적 처지에 관한 개선과 農業生産力の 발전문제를 연결시켜 북한의 農業生産力の 부진현상을 극복하려는데 있었다.

둘째는 그들에 의해 도발시킨 六·二五動亂의 막대한 피해로 인하여 북한지역 내에서의 정상적인 營農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들은 六·二五로 인하여 耕作地 面積의 減少를 비롯하여 役畜 動物의 損失과 특히 農村勞動力의 원천이되는 靑壯年의 군대로의 징발 및 많은 人口移動(越南)으로 절대적인 노동력의 부족을 절감하게 되어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놓이게 됨으로써 農業集團化를 서둘러야 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북괴 정권은 一九五三년二月二일에 「빈농 및 영세농민의 경제상황 개선책」을 발표하므로 農業의 집단화·작업에 착수하였고, 이어 一九五三년八月에는 勞動黨 第六次全員會議에서 농업집단화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一九五三년부터 一九五四年까지 시험적 단계를 거쳐 一九五五年부터 북한 전역에 집단화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一九五八年八月에 이르러 農業의 집단화는 완료되었다.

이어 同年 10월 11일에는 내각결정 一二二호에 의거, 드디어 全行政單位의 協同組合組織을 完了하여 三, 八四三개소의 統合된 농업협동조합을 편성·완료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농민들이 소유하였던 토지·가축·농기구등 일체를 조합 소유로 이전해 버렸다.

이로써 북한의 농민들은 사실상 全人民委員長이 관장하는 협동조합의 조합비인 「품팔이꾼」으로 전락되고 말았으며 자신의 농민으로서의 독립적인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그후 一九六二年에는 그 명칭을 農業協同組合을 協同農場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음 이 協同農場의 운영체제를 보면 이 협동농장의 운영은 명목상 농장원 총회 또는 대표자 회의로 되어 있다. 그러나 內容的으로는 노동당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協同農場員은 다만 黨의 지시와 결정에 맹종하여야 하고, 또한 黨의 강력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농업의 집단화로 인해 농민들의 개별적인 의

사가 완전히 몰살된 채 당에 의한 일방적인 운영으로 농민들은 자기네들의 노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

2. 農業集團化의 經濟的 意義

본래 農業集團化의 기본적인 목적은 농업생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업의 집단화는 소규모의 當農方式을 대규모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계화를 가능케하고 아울러 노력의 합리적인 이용을 기하며 또한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그리고 集約的 農法의 적용등을 통해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기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농업의 집단화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自願性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共產集團은 이 自願性의 원칙을 무시하고 강제성의 원칙을 도입하여 집단화를 완료하고, 본래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을 유발시키고 있다. 즉 북괴는 경제적인 의의는 第二次的인 문제로 돌리고 빠른 시일내에 북한의 농촌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는 데에 저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수 없는 상태이다.

요전대 북한의 농업집단화는 小農社會에서 個別農家의 역량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을 상호 협조로서 추진하는 利点 즉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協同農場

을 共產体制의 확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데에 보다 큰 의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조직·운영·소득의 분배면에서 經濟原則을 벗어난 經濟外的인 강제가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3. 農業集團化의 諸 問題點

오늘날 북한의 농업집단화가 지니고있는 분절점은 지난一월四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되었던 북한의 전국 農業大會의 폐회식에서 金日成이 행한 연설을 분석함으로써 도출될 수 있다.

김일성이 말하기를 「많은 과학기술자들이 誇아빠진 사상에 오염되어 일을 게을리하고 있기때문에 북한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농민이 농기구를 소홀히 취급하는 풍조와 지도자들의 党性·勞動階級性·人民性등이 부족하여 黨이 10년 전부터 강조해온 農村改革運動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要領主義와 現實主義가 만연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북한의 농업이 계획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심각한 분절점들을 안고 있음을 알수있다. 즉 북한의 농업은 북한 농민들의 만성적인 태업현상과 무리한 계획에서 나오는 노력과 자재의 낭비, 그리고 농촌지도자들의 관료적인 사업작풍이 가져오는 모순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때 북한의 농업은 그들이 당초 계획하였던 바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통한 농업의 발전은 물론 기본적인 목표인

농업의 사회주의화마저도 실패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問題點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기술의 落後性을 모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一九六一년부터 七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농촌의 기술·문화 및 思想革命을 農業政策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농업의 水利化·電氣化·機械化·化學化를 농업 기술혁명의 총노선으로 정하여 農業生産 기반의 擴充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水利化를 위해서 岐陽·靑丹·압록강 및 新溪 관개공사를 실시하여 경지 면적은 약 一·二배, 揚水能力은 약三·二배가 제고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어 약간의 진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기계화 문제에 있어서는 이를 기술혁명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농촌에 「트랙터」·화물자동차 및 각종 농기구를 다수 공급할 것을 계획하여 약간의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전기화의 문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化學化의 문제에 있어서는 七개년 계획 기간중 化學肥料의 施肥量이 三·二배, 農藥의 撤布量이 三·三배로 늘어나고, 一九六九년에는 경지 1정보당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논이 六七四kg, 밭이 四七八kg에 달하였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퇴비의 증산 및 土壤의 酸化防止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괄목할 만한 발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요컨대 북한은 六〇년대에 있어서 농촌 기술혁명의 목표를 이룬

바 水利化・機械化・電氣化・化學化에다 두고 推進하였던 바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집약화 및 증산 기술면에 있어서는 아직도 낙후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재배기술의 중점을 多肥・深耕・密植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冷床苗法의 과대선전 등을 미루어 볼때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수리화나 전기화 등 集約農法을 위한 여건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로 집약도를 높이기 위한 작물 재배나 육종 기술의 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낙후 상태에서 그 불균형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북한농민의 생산의욕이 극도로 침체되어 있다는 점이다.

북괴정권은 집단화의 당초부터 자원성의 원칙을 무시하고 集團農場에 가입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중한 現物稅의 負擔이라든가 種子 및 비료의 배급에 있어 차별대우를 함으로 부득이 協同農場으로 끌려 들어오게 하였기 때문에 農場發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열의와 창의적인 활동을 농민들로부터 기대하기 곤란하고, 또한 집단화의 방법에 있어서도 소련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한 획일적인 방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우선 선택의 자유가 결여되어 있고 가입자의 복지가 도외시되고 있으며, 생산계획 자체도 중앙 계획기관의 방침에 의거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受動的인 입장에 서게 된다. 따라서 자동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규모의 경제성이나 分業과 協業의 장점을 취하는 것

보다는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통해 농민들에게 획일적인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적장규모화의 소홀이라든가 나아가서는 勞動의 虛費과 낭비가 수반되어 생산성의 저하를 초래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함을 제거하기 위하여 分擔都給制를 채택하였으나 이것 역시 농민들을 요령주의와 현실주의로 빠뜨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요컨대 경제성과 자원성의 원칙을 무시한 북한의 農業集團化는 생산의욕의 감퇴를 필연적으로 낳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분절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思想改造를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만회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각종 社會主義 勞動 競争運動을 전개하여 노동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어느정도 생산증대를 달성하였으나 농민들의 노력착취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절점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셋째, 급속한 농업기계화에 따르지 못하는 농민들의 기술 수준의 저위성을 들 수 있다.

북한은 농촌 기술 혁명의 일환으로 농업의 기계화를 강조하고, 한편 重工業 우선 정책의 결과를 바탕으로 各種 農機械를 自体 生産하여 農村에 공급하여 왔는데 이러한 농기계를 관리하며 협동농장의 작업을 지원하는 기구는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의 지도 관리하에 있는 農機械 作業所이다. 그러나 협동농장 자체의 축적기금으로 구입된 농기구는 협동농장 자체의 관리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기구의 수리를 위하여 역시 郡協同農場經營委員會에 농기구수리소를 두고있다. 그러나 그 수리기술면에서 부진성과 농기구 자체의 질적 문제로 인해 농기구의 가동률이 점차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중공업 우선 정책에 따르는 농업의 구조적인 停滯現象이다. 북괴는 六·二五 직후 戰後復旧 三개년 경제계획을 실시한 이후 제 1차 五개년경제계획 시기로부터 중공업 우선 정책을 채택하고 여기에 부가적으로 농업과 輕工業의 동시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重工業의 우선 정책과 농업 및 경공업의 동시적인 발전이란 특히 북괴와 같은 생산구조하에서는 목적 달성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이다.

앞으로 북괴가 계속 전쟁준비를 위한 중공업 우선 정책을 지향한다면 이에 따라 농업은 이정책에 부수적으로 끌려다니는 현실, 즉 중공업의 資金捻出源으로서의 구실에서 도저히 벗어날수 없으며, 이로 인해 農業은 점점 더 정체될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5. 맺는 말

앞에서 고찰한 바와같이 북괴의 농업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많은 問題點을 안고 있기때문에 구조적인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아울러 농민들의 생활상은 날이

갈수록 곤란해질 것이 예상되며 또한 농민들에 대한 노력의 착취 방법은 교묘히 발달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食糧 自給自足の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며, 이 문제는 그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農業技術을 개발하느냐, 그리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느냐에 판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